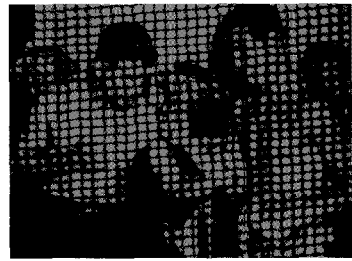


신데렐라맨



희망을 선물한 전설적 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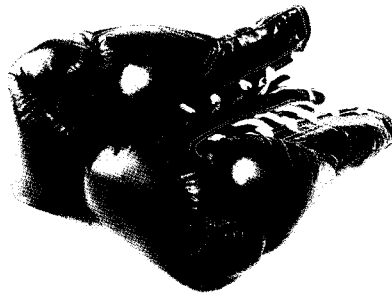


“제임스 브래독”

출생 및 사망 1906~1974

출신 미국 뉴욕

직업 권투선수 86전- 46승(26KO) 7무 25패 2무효



뉴욕에서 태어난 그는 열네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사 노동자로 일하다 열일곱살에 아마추어 복서로 복싱계에 입문했다. 1926년 체급을 미들급으로 바꿔 프로로 데뷔한 후 발 빠르고 강한 펀치의 복서로 자리잡았다. 다시 라이트 헤비급으로 바꾼 그는 1929년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헤비급 챔피언 토미 로런에게 도전했다가 패한다. 그 시합은 불운의 전초전이었다. 이후 내리막길이 계속됐고, 급기야 1933년 에ιβ 펠드먼과의 시합에서 손이 부러지는 부상까지 당했다. 지독한 가난에 부상을 치료할 돈이 없어 복싱을 포기하고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바

텐더, 부두 노동자 등 각종 허드렛일을 했다.

그런데 부상했던 주먹이 기적적으로 회복됐다. 브래독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이를 악물고 다시 링에 올랐다. 1935년 6월 13일, 헤비급 세계 챔피언인 맥스 베어의 타이틀 방어전에서 브래독은 15라운드까지 가는 끈질긴 격전을 벌인 끝에 심판들의 만장일치로 판정승을 거뒀다. 어느 누구도 그가 이미 2명이 나 황천길로 보낸 맥스 베어의 주먹을 견뎌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더구나 복서로는 거의 황혼에 가까운 나이인 30세의 나이에 이를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브래독 대 베어의 세기의 결전

대공황의 그늘이 짙어만 가고 있던 1935년 6월 13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에서 권투 역사상 보기 드문 세기의 결전이 벌어졌다. 바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 맥스 베어와 도전자 제임스 브래독의 결전이였다. 베어는 멋진 몸매에 매력과 재치가 넘치는 사람으로 뉴욕 일류 호텔에 살면서 멋진 야회복을 차려입고 화려한 레스토랑과 호화 나이트클럽을 오가고 있었다. 도전자 제임스 브래독은 대공황 초기에 모아둔 돈을 모두 날렸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그는 처음에는 부두 노동직을 찾아 나섰고, 그런 기회마저 없을 때는 구제기금 신세를 졌다.

처음 몇 라운드에서는 베어가 강세를 보였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싸우고 있는 브래독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한 선수가 라운드에서 우세를 보일 때마다 관중들은 경기가 일찍 끝나리라 예측했다. 그러나 상대는 계속해서 반격을 해왔다. 이러한 주고 받기 싸움은 믿기 어려운 15 라운드까지 이어졌고 불굴의 투지와 엄청난 인내력으로 맹공을 퍼부었던 브래독은 마침내 심판의 만장일치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것은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승임을 보여주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마치 브래독이 그의 가족인 것처럼 기뻐하며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보통사람들의 챔피언

브래독이 챔피언 타이틀을 따냈을 때 그는 역대 챔피언 중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다. 그가 대중에게 그토록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링에서 보여준 비범함이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브래독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브래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던 미국 대공황 시기에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서 좌절감과 승리감을 동시에 맞본 사람이었다. 인종과 민족을 막론하고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구제 기금에 의존하던 패배자에서 스포츠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인물의 이야기에 고취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스포츠 동화의 원형이 되었고, 챔피언 타이틀을 따내기 전 저널리스트 데이먼 러니언은 그에게 “신데렐라 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스포츠 명사들 가운데 ‘신데렐라’라는 동화속의 여주인공과 연결된 사람은 브래독이 처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2005년 러셀 크로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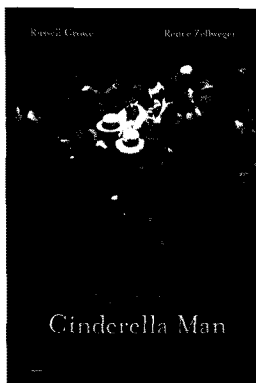
아내와 가족을 위해 싸웠노라

그 후 브래독은 경기를 계속했으며 1937년 조 루이스와의 경기에서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넘겨주었다(당시 루이스는 23세였던 반면 브래독은 32세였으며, 루이스는 후에 브래독이 그가 대결을 펼쳤던 선수들 중에 가장 용기있는 선수였다고 회상했다). 브래독은 1938년 토미 파와의 경기를 승리를 이끌면서 타이틀 재획득의 기회를 얻었으나 자신은 싸움 그 자체가 아닌 아내와 가족을 위해 싸워왔노라고 기자들에게 말하면서 은퇴를 했다. 수년 동안 브래독은 그의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웅으로 남았으며, 1964년에는 복싱 명예의 전당에 그리고 2001년에는 국제 복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남겼다.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

책 신데렐라 맨

저자 제레미 샤프 | 역자 박아람 | 출판사 생각의나무



영화 신데렐라 맨

원제 Cinderella Man 감독 론 하워드 주연 러셀 크로, 르네 젤위거
장르 드라마, 멜로·로맨스 개봉일 2005.09.15 홈페이지 http://www.cinderellaman.co.kr

할리우드 최고의 제작진과 스타가 모여 전설적인 복서 제임스 브래독의 일생을 담은 영화 《신데렐라 맨》을 완성했다.

미국의 최고 암흑기였던 경제 대공황 시기, 전도유망했던 라이트 헤비급 복서 브래독은 잇단 패배와 부상으로 복싱을 포기하게 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각종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

하지만 복싱에 대한 꿈을 단념하지 못한 그는 결국 다시 링 위에 오르고, 왜소한 체구, 끊임없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연승행진을 이어간다. 이미 2명 이상의 상대를 사망 직전까지 몰아간 억압한 챔피언 맥스 베어와의 결전을 눈앞에 둔 브래독,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경기를 위해 링에 오른다. 스스로를 ‘헝그리 복서’라 칭하며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한 전설적 복서 브래독의 진실된 이야기와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이 시작된다.

